

HEADLINE NEWS

‘디지털 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 개발프로그램 시행 (뉴욕)

뉴욕시는 지난해 4월부터 Harlem, Long Island City, Brooklyn Navy Yard, Sunset Park 등 7곳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지역 개발 프로그램(Digital NYC : Wired to World Programsm)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 동안 시는 약 10만 평방피트에 30여 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South Bronx에 있는 3만 평방피트의 BronxSmart 구역을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후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특별지역의 장점은 적절한 임대료, 광케이블 설치, 편리한 교통, 세금 감면 및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을 들 수 있다. 시는 이 프로그램이 지주와 임차인, 시 모두에 이득이 되는 Win-Win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적어도 1평방피트당 15달러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www.ci.nyc.ny.us/html/om/html/2001a/pr118-01.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경관관리를 위한 10대 조망축 선정 (시애틀)
- ② 에너지절감형 미래형 주택으로 구성된 생태마을 조성 (런던)
- ③ ‘건축 및 토지이용지침’ 개정 추진 (파리)
- ④ 주민 및 관광객 위해 ‘광장’ 조성계획 추진(미국 애슈빌시)

도시환경

- ⑤ 실내공기 오염으로 천식환자 급증 (필라델피아)
- ⑥ 공해물질 유발하는 소형 소각로 사용 금지 (일본: 이와테縣)
- ⑦ 기후개선 위해 태양열 발전설비 확대 추진 (베를린)

도시교통

- ⑧ ‘도심의 국제화 위해 대중교통24시간 운행 추진(동경)
- ⑨ 적자노선운행 버스업체 대상 노선포기의사 및 경영실태 조사 (히로시마)
- ⑩ ‘노트북’을 장착한 9인승 택시 도입 (일본: 우오즈市)

행재정

- ⑪ 심의회 및 위원회 일정 및 회의내용 공개 (나가노市)
- ⑫ PDA를 통해 관광안내정보 제공 (나리縣)
- ⑬ 음식점 위생검사결과 게시 의무화 (토론토)

사회복지

- ⑭ 구청이 치매노인·장애인 재산관리 대행 (동경)
- ⑮ 노인·장애인 대상 대출도서 무료택배서비스 제공 (일본: 아오모리市)

‘디지털 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개발프로그램 시행 (뉴욕)

☞ 1면서 계속

이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현재 비영리단체, 빌딩소유주, 첨단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市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市 경제개발공사가 이 프로그램 전반을 조정하고 있다. 市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기술 및 뉴 미디어 기업들을 활발히 유치하고 있으며, 유치기업들은 市에서 제공하는 이사비용(Relocation Grants), 임대료 할인, 저렴한 에너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국제개발연구평의회 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최고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Global Innovator’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 경관관리를 위한 10대 조망축 선정 (시애틀)

시애틀市는 고층화추세에 따른 경관악화 및 조망차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市 상징탑인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을 중심으로 10대 조망축을 선정했다. 이는 상징탑으로의 조망이 보호되어야 할 10개 조망점을 선정하고 이 조망점으로부터 상징탑의 조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市는 이를 위해 조망축에 포함되는 지역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그 높이를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10개의 조망점은 장애인도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주택공급 등 다른 시책과 상충될 수 있는 조망축은 제외시켰다. 市는 市 의회의 심의가 끝난 후 10대 조망축을 확정할 방침이며,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주변 산악경관으로의 조망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seattlep-i.nwsources.com/local/18999_view17.shtml)

2 에너지절감형 ‘미래형 주택’ 으로 구성된 생태마을 조성 (런던)

영국 런던 근교 서레이의 서튼에서는 탄소 방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절감 기능을 가진 ‘베딩턴 제로 에너지 개발(BedZed)’ 생태마을이 미래의 환경 친화적 건축을 위한 모델로서 조성되었다. 총 82가구로 이루어진 이 생태 마을은 전통적인 주택에 필요한 열 에너지의 10% 정도가 소요되며, 20개의 사무실, 유치원, 상점, 스포츠 센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마을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용도가 분명치 않은 개발지역의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BedZed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이용되며, 태양열 사용은 최대한 늘리고 열 손실은 최소화하며 광전지에 의한 태양열 패널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주택들이 건립되었다.

(www.britain.or.kr/korean/young/200104/news.htm#14)

3 ‘건축 및 토지이용지침’ 개정 추진 (파리)

프랑스 파리시는 파리시 14구의 풍치 보전을 위해 시의 ‘건축 및 토지이용 지침(POS)’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 지역내 31개 풍치 건축군의 고건축군(EAC) 지정, 12개 개인소유정원의 보전내부녹지(EVIP) 지정, 13개 지구의 다양한 보전방안(용도, 건물 높이, 외관 규정 등) 활용, 그리고 도로확장 세부규칙 철폐 등이다. 지침개정 관련 행정절차의 1단계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개 구청에서 수정안에 대한 공람이 이루어졌고, 2단계로 수정계획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가 있었으며, 3단계로 심의회의 보고서와 공람 기간 중에 접수된 내용의 검토가 완료되었다. 이 수정안은 향후 14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www.paris-france.org/carto/procedure.htm)

4 주민 및 관광객 위해 ‘광장’ 조성계획 추진 (미국 : 애슈빌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시는 도시의 몇 개 구역 또는 구역 내 건물을 한데 묶어서 광장으로 꾸미는 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시는 입지, 역사적 배경, 주변건물들의 건축구조 등을 고려,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이다.

(www.ci.asheville.nc.us/planning/downtown/packsquare.htm)

5] 실내공기 오염으로 천식환자 급증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市는 최근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천식 경계의 달(Asthma Awareness Month)」을 지정하는 등 관련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市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13명 중 1명 꼴로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市는 이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이 일과 중 약 90%에 이르는 것을 감안, 일차적으로 간접흡연, 먼지, 곰팡이균, 바퀴벌레 등과 같이 실내 공기 오염의 직간접적인 원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오존오염 원인물질과 먼지의 배출량 저감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ns.lycos.com/ens/may2001/2001L-05-01-09.html)

6] 공해물질 유발하는 소형 소각로 사용 금지 (일본 : 이와테縣)

일본 이와테(岩手)현은 오존층 파괴의 원인물질인 프레온가스와 다이옥신을 대량 배출하는 시간당 50kg 미만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형 소각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방지조례’를 개정했다. 縣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들판의 건조·폐플라스틱·폐고무 태우기 금지, 폐자동차의 야적 규제, 주차시 공회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보존노력을 기업 스스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했으며, 온난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특정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계획을 수립 및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www.kahoku.co.jp/NEWS/2001/05/11J_06.HTM)

7 기후개선 위해 태양열 발전설비 확대 추진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02년을 목표연도로 해 CO₂ 감축과 태양열 발전시설의 확대를 추진중이다. 이 기간 동안 베를린의 14개 단체, 연구기관 및 에너지공급업체는 태양열 발전시설을 구체화하고 법적 기준 이상의 CO₂를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주로 임대주택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태양에너지 집열판의 설치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급업체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 공급 경쟁을 위해 과세 체계와 평가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관련당국은 이를 통해 주택공급업체와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주택에 '환경친화적'인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volltext.shtml)

8 '도심의 국제화' 위해 대중교통 24시간 운행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 오오테마치(大手町)·마루노우치(丸の内)·유우락구초(有樂町) 지구의 地主로 구성된 지구재개발계획추진협의회는 도심의 국제화 전략을 담은 「東京 도심의 비전 조사 보고서」를 東京都 및 千代田區에 제출하고, 우선 국제 수준의 호텔 유치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국내외 주요도시와의 교통 접근성 강화, 야간·아침시간대의 활동 지원을 위한 24시간 대중교통 수단 운행과 식당 운영, 국제 수준의 호텔 설치 등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인재 양성 및 집적을 위한 「비즈니스 사회」육성과 마루노우치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조성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문화예술 시설 설치,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4. 17)

9 적자노선운행 버스업체 대상 노선포기인사 및 경영실태 조사(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廣島)시는 올해 4월에 개정된 도로운송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의 노선 철회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난 5월 10일부터 시내 17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버스노선 포기의사 및 수지(收支)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조사가 완료되면 폐지대상 노선이 있는 지역과 대책을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새롭게 책정할 계획이다. 1,449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노선철회의사 유무, 노선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노선 경합률, 1일 운행횟수, 평균 승차밀도, 경상수익 등 16개 항목이다.

(www.chugoku-np.co.jp/News/Tn01051103.html)

10 '노트북' 을 장착한 9인승 택시 도입 (일본 : 우오즈市)

일본 토야마(富山)현 우오즈(魚津)시에서는 최근 IT(정보기술)를 도입한 택시가 등장했다. 「모바일 점보 택시」라 불리는 9인승 택시에는 PC용 테이블 위에 노트북 PC를 장착,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점보 택시는 일반택시보다 상대적으로 넓고 안락한 좌석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텔레비전이나 DVD도 볼 수 있는 액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토야마신문, 4. 19)

④ 심의회 및 위원회 일정 및 회의내용 공개 (나가노市)

일본 나가노(長野)시는 최근 총 113개 심의회·위원회의 일정과 회의자료를 市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존에는 주로 회의의 개최일시 등을 공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전에 회의목적이나 안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市의 이번 조치는 일본 내에서 네 번째로, 「심의회 등 회의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지침에 따르면, 市는 회의의 일정이나 심의 사항 등에 대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市 행정자료 열람 코너에 게시하거나 市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회의 방청객 수를 제한할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정하는지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아사히신문, 4. 21)

④ PDA를 통해 관광안내정보 제공 (나라縣)

일본 킨키(近畿) 지방정비국은 올 가을부터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활용, 나라(奈良)현 아스카무라(明日香)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정비국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요 역이나 자전거 대여점을 통해 관광객 전용 PDA를 대여한 후, 이 PDA로 관광명소의 최단 경로나 휴게시설, 관광코스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정비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음식점이나 토산품 판매점 등의 이용을 늘림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아스카무라村은 고대 유적이거나 사찰 등 명소가 많아 도보나 자전거로 둘러보는 관광객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지만, 경관 보전 등을 이유로 안내판을 적게 설치해 방문객의 불만이 많았다. PDA를 이용한 관광안내정보 시스템은 현재 이용시간이 짧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지만, 당국은 향후 이용자의 반응을 조사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4. 14)

음식점 위생검사결과 게시 의무화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 보건당국은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검사 후 그 검사결과를 음식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위생검사는 고급호텔 내 식당에서부터 노점에 이르기까지 음식관련 업소는 모두 포함되며, 올해에는 4천여 개의 음식점이 위생검사를 받았다. 위생검사를 받은 음식점은 그 결과를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 내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영업 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기업체의 경우 5만 달러, 개인의 경우 2만5천 달러이다. 위생검사결과란 검사 후 24~36시간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w4.metrotor.on.ca/icsite/newsrel.nsf)

구청이 치매노인·장애인 재산관리 대행 (동경)

일본 東京都 시나가와(品川)구는 독신생활을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금통장 관리, 부동산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중심으로 한 재산관리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치매노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이 치매 발병 전에 '치매에 걸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계약을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와 체결하면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사망한 후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도 계약시 결정하게 된다. 치매 여부는 변호사 및 의사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아사히신문, 4. 16)

노인·장애인 대상 대출도서 무료택배서비스 제공 (일본 : 아오모리시)

일본 아오모리(靑森)시의 시립도서관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출도서의 무료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립도서관은 종종 심신장애자 및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전화나 팩스, 엽서로 도서대출 신청을 하면 1회에 5권까지 책을 빌려주며, 택배 및 반납 비용은 도서관이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시립도서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읽고 싶은 책을 조사해 이를 「신착도서 월보」에 소개하고 있다. (東奥日報, 4. 14)